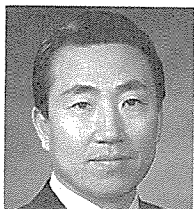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에 李起浩씨

지난 6월 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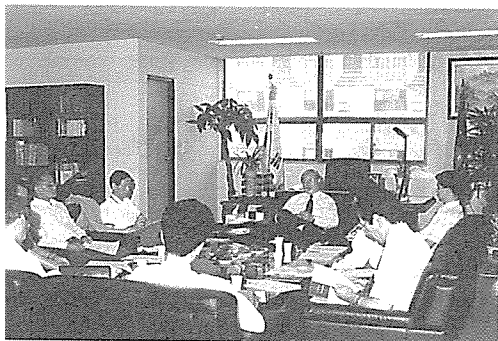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이기호(李起浩)씨를 임명했다.

(사진 : 이기호 차관)

한국 기생충관리 경험 전수

중국 보건관리자 견학 방문



방문 등을 통해 기생충관리에 관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았다.

이번 방문은 특히 최근 한·중 기생충관리사업 교류 및 중국 기생충사업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단(KOICA)과 견학이 후원하기로 한 지원금 542백만원과 관련한 두번째 연수여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하겠다.

중국 예방의학과학원 기생충병연구소 馬正(Feng Zheng) 소장, 중국위생부 질병관리과 崔綱(Cui Gang) 과장을 비롯한 중국 보건관리자 6명이 지난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방문했다.

한·중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생충관리 분야의 교류촉진 및 협력강화를 위해 이루어진 이번 초청 방문에서, 이들은 기술인력 연수 및 관련기관

한편 이들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국내의 기생충학자, 견학 등과 함께 기생충관리 요령, 보건계몽교육 방안, 보건정책 수립 방안 등에 관한 열띤 토의를 했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와 가톨릭의대, 고려의대, 서울의대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기생충 관련 연구 현황을 둘러 보았으며, 견학 부산·대구·대전충남 지부 등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견학하기도 했다.

농협공제 계약자 건강진단 실시



농협중앙회(회장 원철희)는 농민 복지향상의 일환으로 농민건강증진과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95년도 공제계약자 건강진단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3만 5천여명(사업비 8억여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임한중)에 의뢰했다.

'87년부터 자강암 조기발견 사업을 시작으로 농민건강진단에 착수한 후 성인병 위주의 종합건강진단으로 검사종목을 확대하였으며 그 동안 검사결과 다수의

건협서, 올해 3만 5천여명 검사

이상소견자를 발견하여 정밀검사 또는 치료토록 계도하여 농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특히 '95년도에는 심전도검사, 골다공증, B형 간염 등 검사종목을 더욱 보완하여 일반검진의 경우 요검사 등 27개 항목(여자 28개 항목), 효도공제 가입자인 특별검진의 경우 32개 항목(여자 34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농민건강관리에 한층 심혈을 기울였으며, 질병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본 검진사업의 의의는 자못 크다.

한편 본 검진사업은 농협공제 계약자 대다수가 농민임을 감안, 이동검진반으로 하여금 농촌지역을 순회 검진토록 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국민건강증진사업 이해 높여

이대 보건교육과 학생, 건협 방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보건교육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46명이 지난 6월 10일 건협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대학 학과 수업의 일환으로써, 건협 업무내용 및 시설견학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

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교육과 김명 교수의 인솔 하에 협회를 방문한 이들은, 4층 강당에서 건강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건협 서울지부의 검사시설을 견학했다.